

국회 예결특위, 광주·전남 출신 의원 12명 선임

위원장의 與 2명·野 8명·무소속 1명 포함

지역 핵심사업 국비 예산 확보 기대 높여

약 6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정부 예산을 다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 이례적으로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지역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새로 구성된 21

대 국회 마지막 예결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무안·영암·신안)이 위원장을 맡은 것은 물론, 광주·전남에 연고된 문 여야 국회의원들이 11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민의힘 김웅(여수·전주해) (광주) 의원 등 2명 ▲민주당 기동민(장

성)·김경만(간성)·김민철(함평)·김희재(여수)·민형배(해남)·위성곤(장흥)·이병훈(보성)·홍기원(나주) 의원 등 8명 ▲무소속 양향자(화순) 의원 1명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 예결특위 위원 50명이라는 점에서 전체의 24%를 점유하는 것이다. 여기에 전북 출신 김수홍(익산)·이원택(김제)·진성준(전주) 의원(이상 민주당), 이용호(남원)·이용(전주)·조수진(익산) 의원(이상 국민의힘)을 포함하면 호남 출신 예결위원은 모두 18명(3

6%)으로 늘어난다.

국회 예결특위에 위원장을 포함해 이처럼 많은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포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남 출신 박광온 원내대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소속 상임위 배정을 완료했다.

배정 결과, 1년 전과 마찬가지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회로 김승남·서삼석·신정훈·윤재갑·주철현 의원 등 5명이 배정됐다.

이들은 모두 전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 농촌과 어촌의 많은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희망 상임위에 변동이 없었던 관측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김희재·이용빈·김경만(비례)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4명이 활동하게 돼 광주·전남 의원들이 가장 많이 집중된 상임위 2위에 올랐다.

이외 국회의원이 2명씩 배정된 상임위

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문체위에는 이개호·이병훈 의원이, 보복위에는 김원아·강은미(정의·비례) 의원이 포함됐다.

소병철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활동했던 법사위로 다시 돌아왔으며 정보위도 함께 맡는다. 무소속으로 있다가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은 교육위를 떠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치됐다.

이 밖에 송갑석(국방위)·이형석(행안위)·윤영덕(정무위)·서동용(교육위)·조오섭(국토위) 의원은 기존 상임위에서 계속 활동하게 됐다.

서동용·이병훈 의원은 소속 상임위 외에 운영위원회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김진수기자

“나라 살림, 간 맞추는 소금 역할”

서삼석 의원 예결위원장 선출



뒤 내리 3선(42~44대)을 했다.

19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고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당시 국민의당 박준영 전 의원에 약 3천표 차이로 패했다. 2년 후인 2018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며 3수 끝에 국회에 입성했다.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1대 국회에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현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무안(64) ▲전남대 대학원 NGO학 박사 ▲13·14대 국회의원 보좌관 ▲전남도의원 ▲무안군수(3선) ▲20·21대 국회의원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원내대표 ▲제1사무부총장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김진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약 6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출됐다.

서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나라 살림도, 국민의 삶도 보다 진일보해 윤택해질 수 있도록 간을 맞추는 소금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출신인 서 위원장은 조선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전남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전남대 일남대학원 N-GO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업무 처리가 치밀하고 대인 관계는 원만해 동료 의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88~1994년 박석무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거쳐 36세였던 1995년 전남도의원에 당선된 후 재선했다. 이후 체급을 올려 2002년 무안군수에 도전해 성공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왼쪽 세 번째)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기준 초과 오염수 방출 안돼…日, 기준치까지 정화 방침”

후쿠시마 방류 앞두고 일일브리핑…국무 1차장 “시운전 예의주시”

정부는 15일 일본이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방류 시설 시운전을 시작한 데 대해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일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에서 불안감이 커지자 이날부터 일일 브리핑을 하고 오염수 방류 안전 검증 관련 설명을 나서기로 했다.

박 1차장은 먼저 브리핑 배경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지난 12일부터 2주 일정한 기간 동안 도쿄전력의 해양방출

설비 시운전에 대해 이송펌프 정상 작동, 이상상황 발생 시 방출 차단 여부 등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운전은) 방류시설 전체가 아닌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 상하류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이라며 “시운전이 끝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전검사 등 정상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28일 우리 정부 시찰단의 현지시찰과 관련해서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성능,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1차장은 최근 “ALPS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배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수에서 검출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스트론튬 검출치가 일

본 배출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30Bq/L)의 1만4천433배이고 한국 배출기준인 리터당 20베크렐(20Bq/L)의 2만1천60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농도가 측정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워물만 시료로 채취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IAEA가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됐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배석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도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의 적게는 수천분의 1에서, 많게는 수십만분의 1 정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이 우리 해역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생산 단계와 유통단계 합산, 약 7만5천건의 검사 결과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우리 수산물 검사 항목에 반감기가 1천570만 년인 요오드 129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요오드 129는 검사를 통한 검출 한계치에 잡히지 않는 수준(약 1kg 분의 2Bq/kg)이 검출될 것으로 추정돼 검사 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교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외부 인사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지난 5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래 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과거 ‘천안함 자폭’ 등의 발언 논란으로 임명당 일 사퇴한 지 열흘 만이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긴급 최고위 회의 후 “당 혁신을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며



“김은경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다. 김 교수는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끈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당무감사위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수기자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CHEMICAL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